

보도 일시	2022. 4. 29.(금) 조간 온라인 4. 28.(목) 12:00	배포 일시	2022. 4. 27.(수) 15:00
담당 부서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은형 (02-2100-6271)
		담당자	사무관 강병관 (02-2100-6276)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 · 학대 경험”

-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대상 첫 실태조사 -

- ☐ 위기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44.4%), 언어적 폭력(46.0%)을 경험
- ☐ 가출의 주된 원인은 가족과의 갈등(69.5%) > 자유로운 생활(44.3%) > 부모 · 형제 등 가족의 폭력(28.0%) 순
- ☐ 지난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위기청소년은 26.2%이며, 자해시도 경험은 18.7%, 자살시도는 9.9%로 나타남
- ☐ 위기청소년의 19.8%는 온라인 인권침해(디지털 성범죄 등)를 당했고, 여성청소년이 더 높은 피해 경험을 보임(여성 26.6%, 남성 13.5%)
- ☐ 위기청소년은 일자리(77.6%), 직업훈련(76.6%), 건강검진(76.4%) 제공 등의 서비스를 희망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9일(금)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로 가출, 자살, 비행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고,

-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심리 · 정서적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복지 정책 개선을 위해 실시했다.

- 조사대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과 같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했거나 입소한 경험이 있는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이들의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과 심리적 특성, 위기상황 등을 조사했다.

* (조사대상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소년원, 보호관찰소

<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 조사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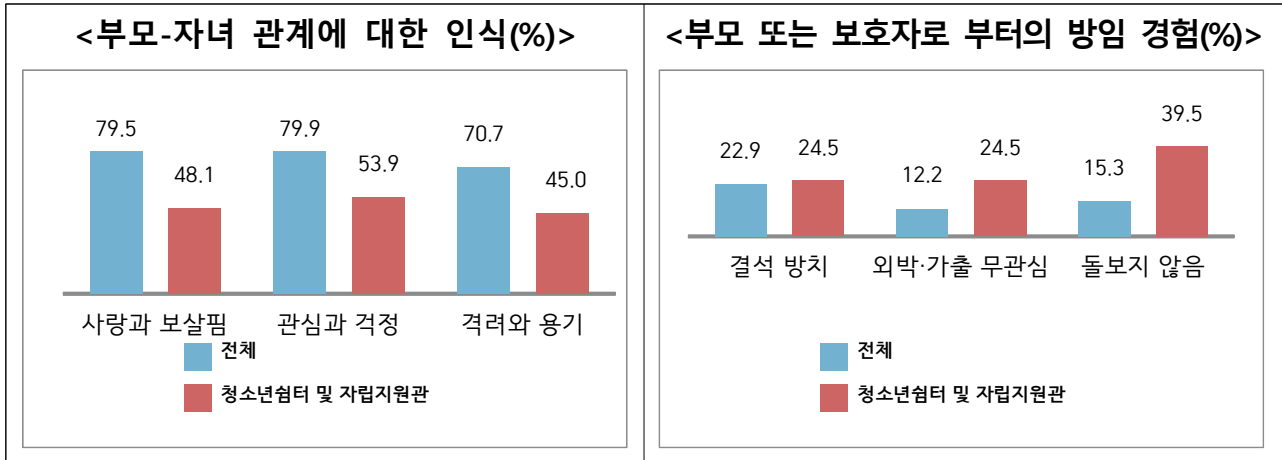
- (조사명)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통계승인번호 제154022호)
- (조사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의2
- (조사기간) 2021. 8. 27. ~ 11. 30.
- (조사참여)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입소 경험이 있는 9~18세 청소년 4,399명
- (조사내용) 심리·정서적 특성, 가정안팎 생활경험, 위기상황 경험, 정책 수요 등
* 조사내용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문항은 연령 구분(9~11세, 12~18세)
- (조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

- 조사결과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등 중장기 청소년 복지·보호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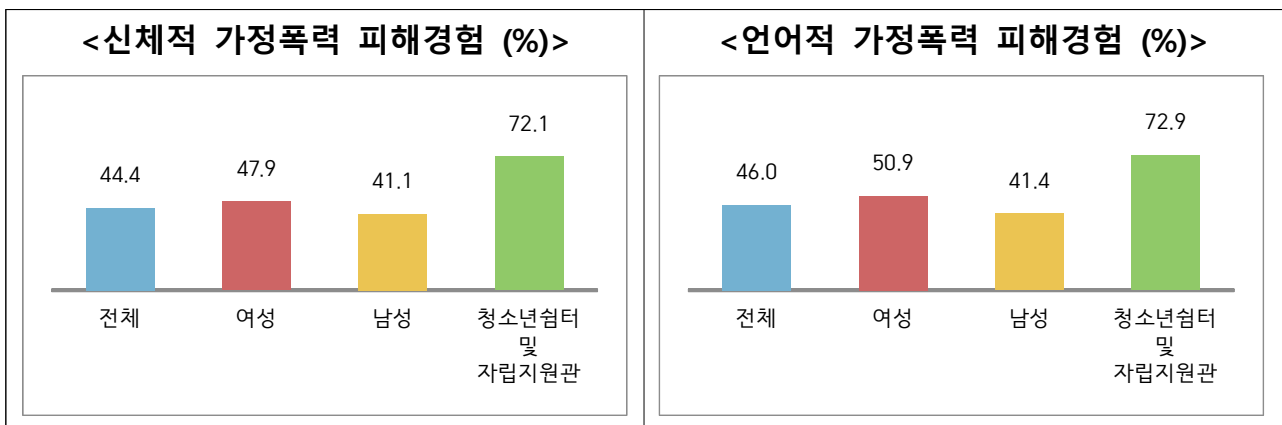
□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위기 배경 요인

- (부모-자녀 관계) 위기청소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대체로 70~80%의 긍정응답률을 나타냈으나,
 - 그중 가출청소년 보호·생활시설인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40~50%로 낮게 나타났고, 부모나 보호자로부터의 방임 경험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정폭력) 위기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부모 등으로부터 신체폭력(44.4%), 언어폭력(46.0%)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조사대상 중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 신체폭력 72.1%, 언어폭력 72.9%로 피해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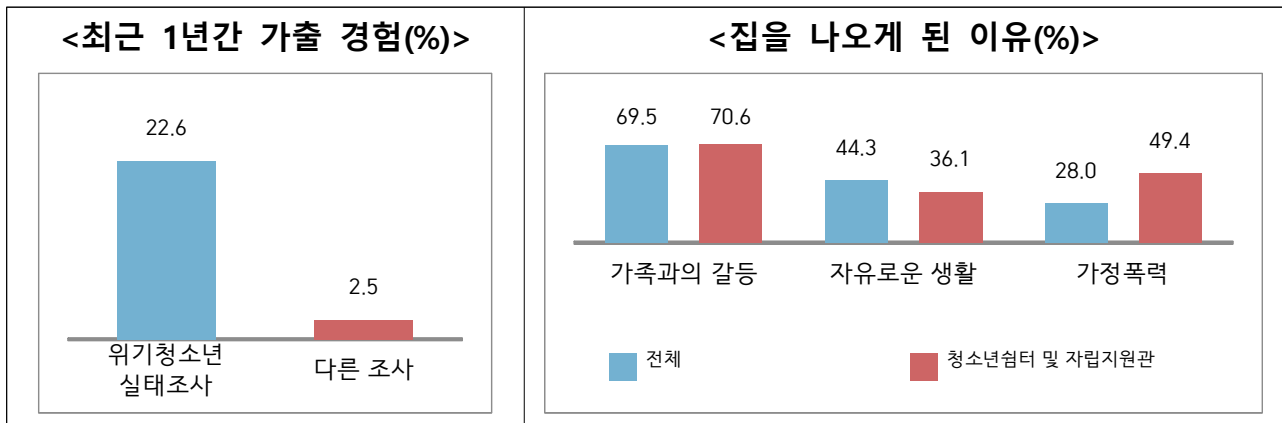


2 위기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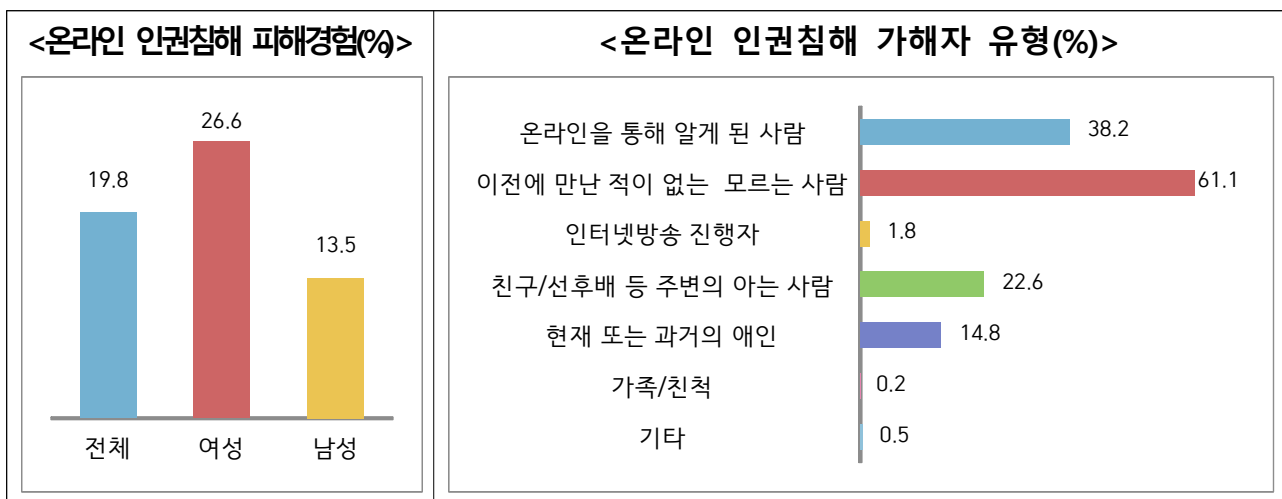
- (가정 밖 생활 경험) 위기청소년의 가출 경험(생애경험 32.6%, 최근 1년간 22.6%)은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이하, '다른 조사')에서의 청소년 가출경험률(최근 1년간 2.5%)과 비교 시 9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조사대상)	초4~고3 학생 1만 5천여 명(조사주기 2년)
• (조사내용)	매체이용경향, 폭력피해, 유해약물이용, 근로보호 등 청소년의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 가출원인은 가족과의 갈등(69.5%), 자유로운 생활(44.3%), 가정폭력(28.0%) 등이 주된 이유이지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 부모·형제 등 가족과의 갈등(70.6%)이나 폭력(49.4%)과 같은 가족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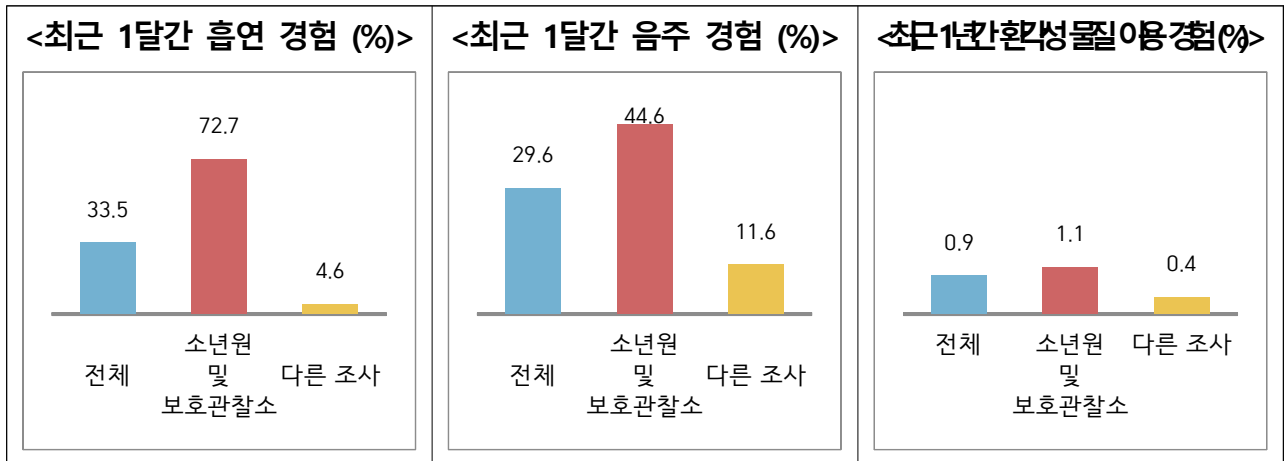
-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생활형 청소년쉼터를 알고 있는 청소년은 66.0%이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59.6%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중 청소년쉼터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93.8%로 조사되었다.
-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경험) 위기청소년의 19.8%는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유출 등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남성청소년(13.5%) 보다 여성청소년(26.6%)이 높은 피해경험을 보여 온라인 인권침해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61.1%)이 가장 많았다.



- (유해약물 이용경험) 위기청소년은 흡연(33.5%) · 음주(29.6%) · 환각성 물질(0.9%) 등 유해약물 이용 경험도 다른 조사*와 비교 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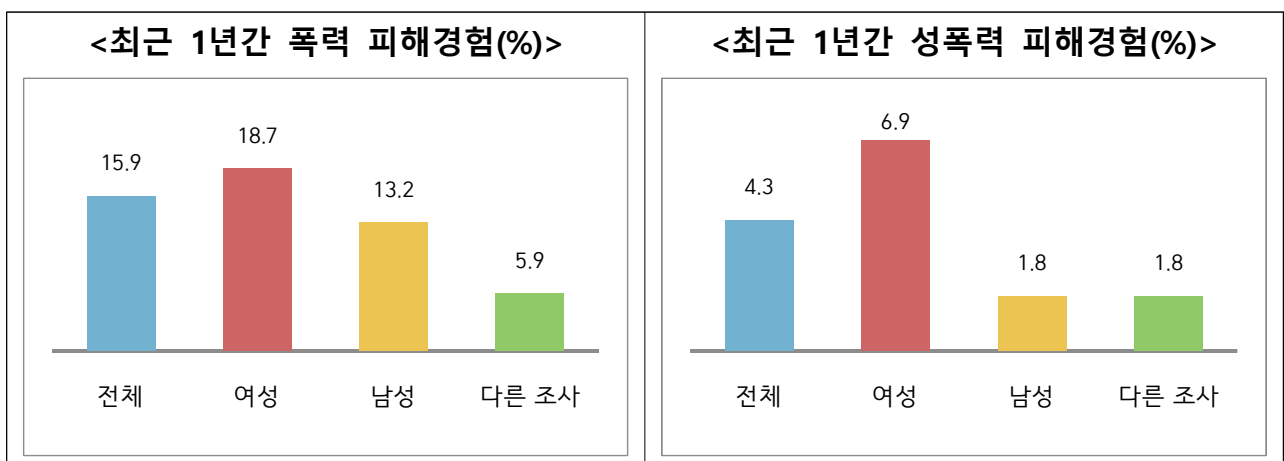
* 흡연 4.6%, 음주 11.6%, 환각성 물질 0.4%

- 특히, 조사대상 중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입소 청소년의 경험률(흡연 72.7%, 음주 44.6%, 환각성 물질 1.1%)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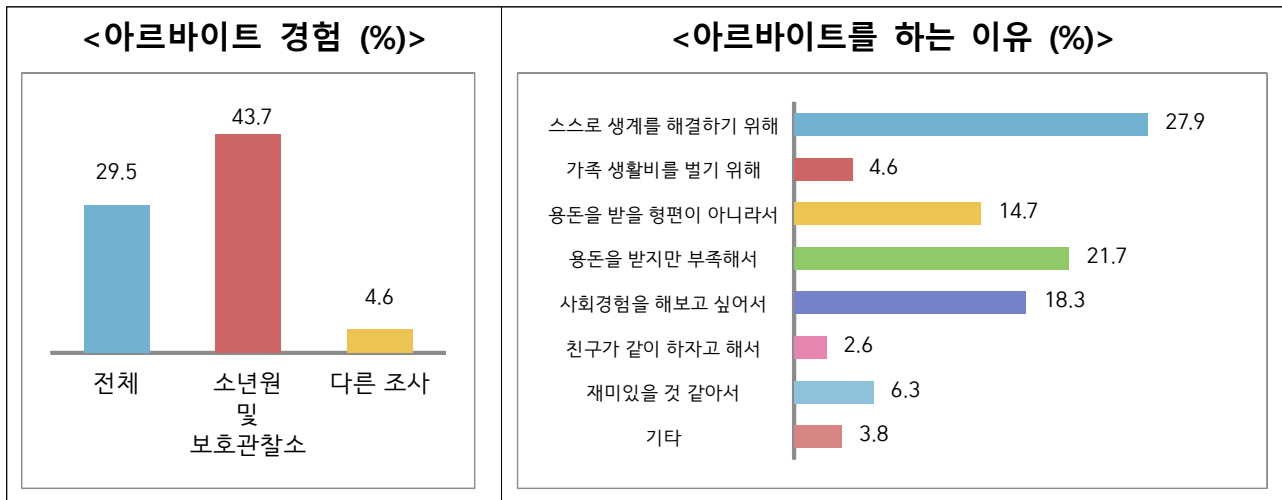
- (폭력 피해경험) 폭력 피해 경험도 높게 나타나 위기청소년의 15.9%는 최근 1년 동안 친구 또는 선후배 등으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 성폭력 피해의 경우도 다른 조사(1.8%)와 비교 시 2배 이상 높은 4.3%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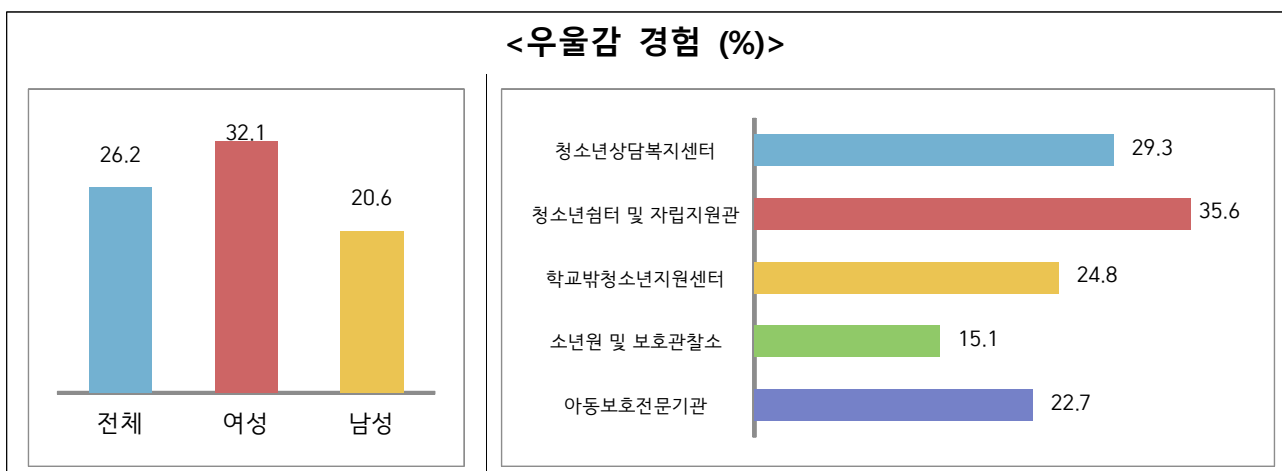
- (아르바이트 경험) 2021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29.5%로 다른 조사 4.6% 보다 6배 이상 많았고,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입소 청소년이 43.7%로 경험률이 높았다.

- 다른 조사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부족(43.7%)을 꼽았으나, 위기청소년은 용돈부족(21.7%) 보다 생계해결(27.9%)이 가장 높았다.
- 특히,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51.9%는 ‘스스로 생계해결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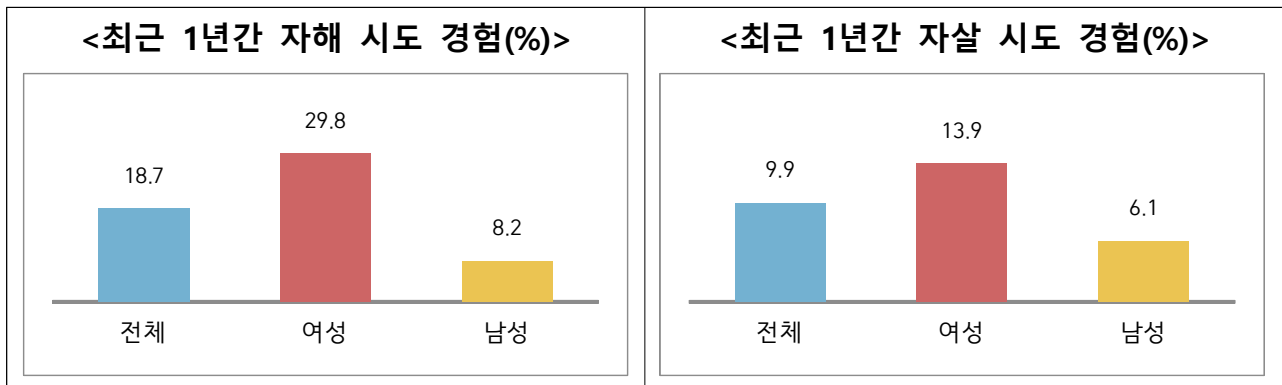


3 심리 · 정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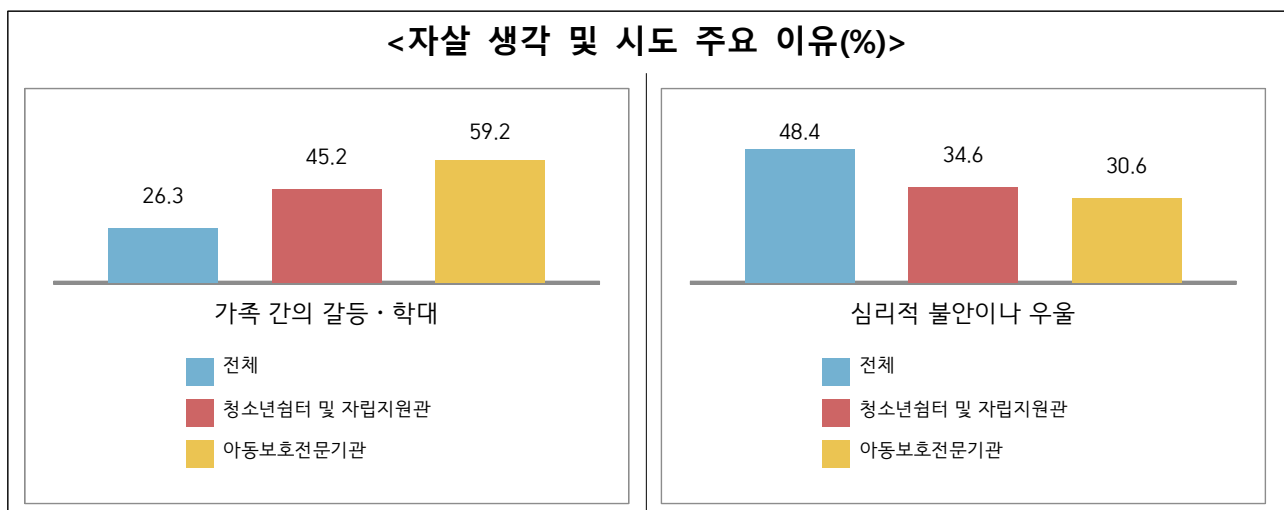
- (우울감) 위기청소년의 심리 · 정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간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는 26.2%로 조사되었고, 여성청소년(32.1%)이 남성 청소년(20.6%) 보다 높게 나타났다.
- 기관유형별로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35.6%)의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자해 · 자살) 위기청소년 중 여성청소년(남성 대비 자해 21.6%p 높음, 자살 7.8%p 높음)이 남성청소년보다 더 높은 자해 · 자살 시도 경험을 보여 자해 · 자살 문제에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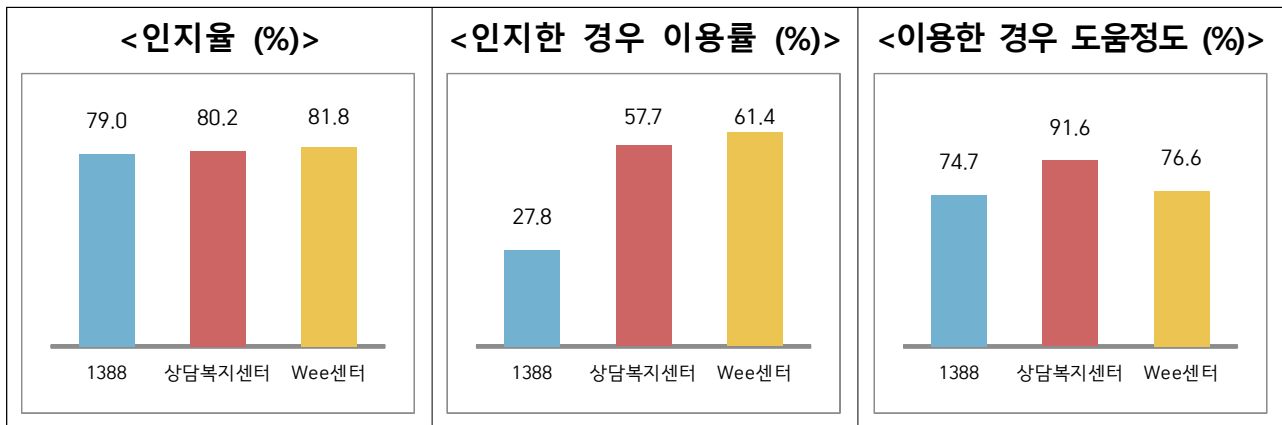
- 자살 시도는 심리불안(48.4%), 가족 간 갈등 · 학대(26.3%)가 주된 이유이지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45.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59.2%) 이용 청소년은 가족 간 갈등과 학대가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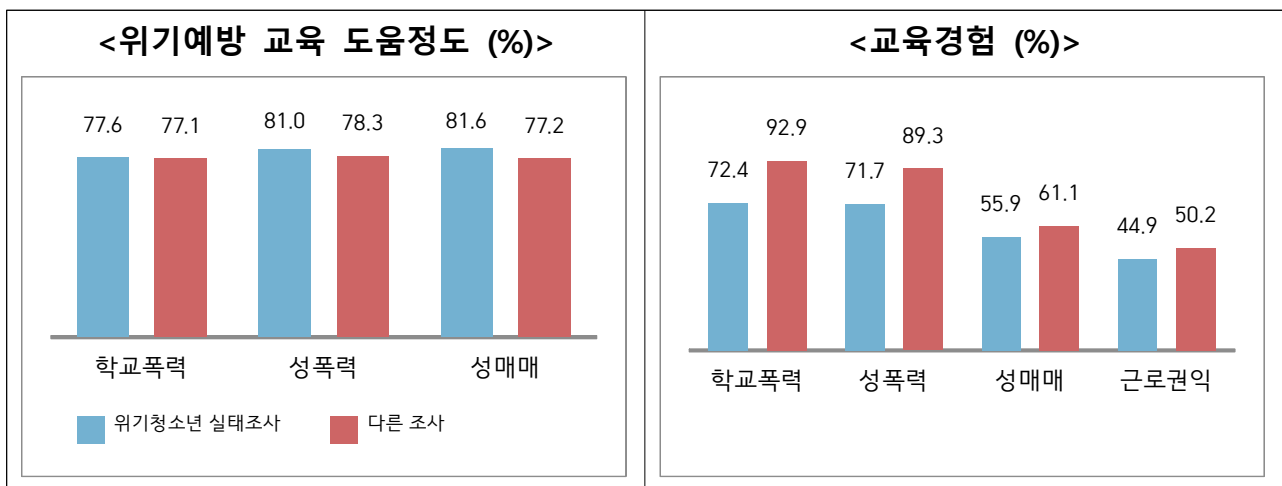
4 보호체계

- (사회적 지지) 가정 밖 생활을 하는 동안 도움을 준 대상은 ‘친구 또는 선후배’(67.4%)가 가장 많았다.
- 폭력피해를 당한 후 청소년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37.8%였으나,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9명 중 1명(11.0%)으로 조사되었다.

-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알고 있는 경우와 알고 이용한 경우는 ‘위(Wee)클래스 또는 위(Wee)센터’가 많았고, 이용했을 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1.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교육) 위기청소년들은 위기에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조사의 청소년 교육경험률과 비교 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정책수요 및 대책

- 가정 밖 생활 중 어려운 점은 ‘생활비 부족’(54.0%), ‘갈 곳·쉴 곳이 없음’(42.4%), ‘우울·불안’(33.3%), ‘일자리 없음’(20.9%) 순으로 조사되었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37.1%)과 ‘숙식제공 등 생활지원’(34.3%)으로 나타났다.

- 위기청소년이 직면한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45.9%), ‘진로를 찾기가 어려움’(30.9%), ‘가족과의 갈등’(27.2%), ‘무기력함’(22.2%), ‘생활 불안정’(19.5%) 등이 높게 나타났다.
- 위기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 제공’(77.6%), ‘직업교육 훈련/자격증취득’(76.6%), ‘건강검진 제공’(76.4%), ‘경제적 지원’(75.4%), ‘각종 질병 치료’(75.0%), ‘일하면서 겪는 피해에 대한 보호’(73.4%), ‘상담 제공’(73.2%) 등으로 조사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위기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전화모바일·사이버 등 채널별 분산 운영 → (개선) 전담인력과 정보시스템을 갖춘 청소년상담1388 통합콜센터 구축('23년~)

- 청소년의 자해·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신규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가 건립도 추진한다.

* 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상심리사 각 2명 배치 검토

** 기존 2개소 이외, 호남권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신규 건립 추진('22년~)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에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직업훈련·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하여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무작위(랜덤) 채팅앱,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의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정규 상시점검인력 : '21년 18명 → '22년 118명

** 청소년근로권익 보호사업 : '21년 4개 권역 → '22년 하반기 전국 확대 추진

-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기청소년이 가정 안팎에서 학대와 폭력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우울감, 자해·자살 충동 등 심리·정서적으로도 취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 “모든 청소년이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함께 주거·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조사 결과 주요 내용

1

조사 참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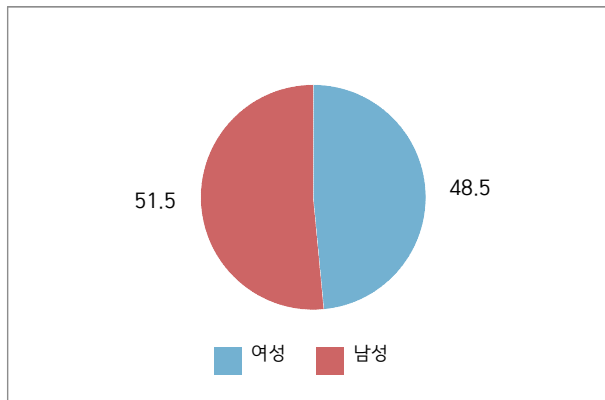
□ (조사대상) 위기청소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부유형별로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을 파악하여 모집단을 설정하고, 이용·입소 청소년 조사

*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소년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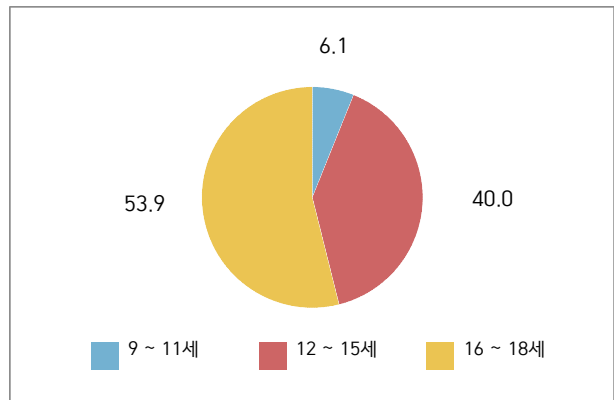
○ 모집단 781개 기관 중 60.7% 조사 참여(474개 기관)

□ (참여현황) 조사에 참여한 4,399명 중 유효표본은 4,203명이며, 남성 51.5%, 여성 48.5%, 연령별로는 9~11세 6.1%, 12~15세 40.0%, 16~18세 53.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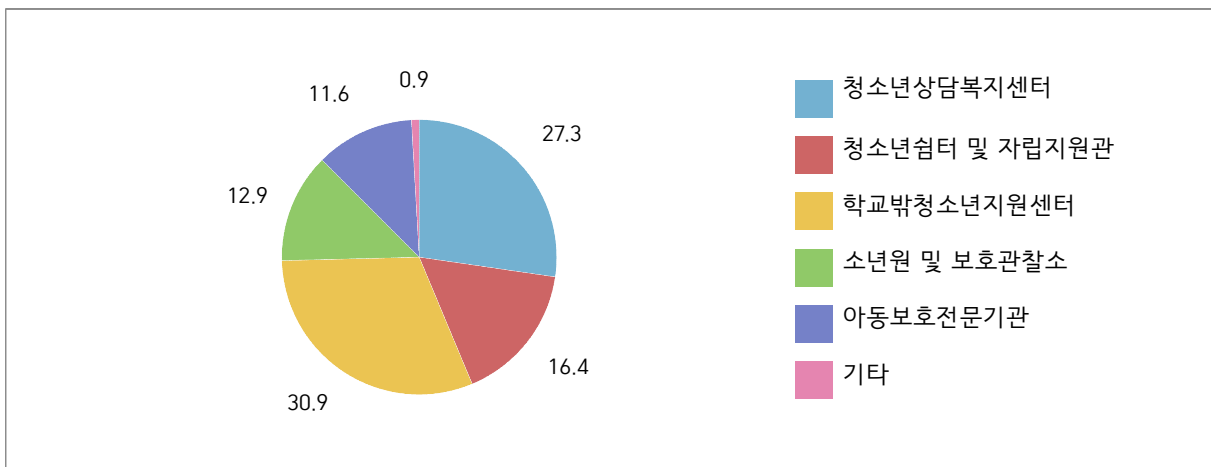
<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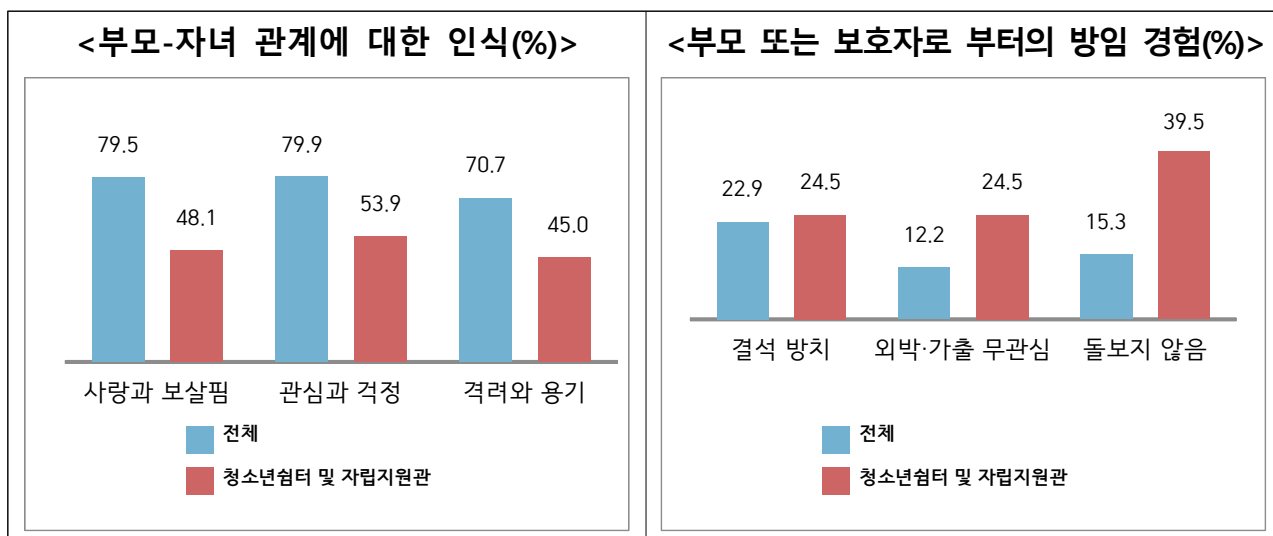
<연령 (%)>



<참여기관 유형(%)>



- (부모-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은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음
-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경우 평균 70~80%의 긍정응답률을 나타냈으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은 그보다 낮은 긍정응답비율(45.0%~53.9%)을 보였으며,
- 방임 경험에 있어서도 전체 위기청소년(12.2%~22.9%)에 비해 높은 비율(24.5~39.5%)을 나타냈음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사랑과 보살핌	관심과 걱정	격려와 용기
성별	전체	79.5	79.9	70.7
	남성	83.0	84.5	76.4
	여성	75.8	75.0	64.7
연령	9~11세	90.3	88.1	81.3
	12~15세	78.5	78.6	69.8
	16~18세	79.0	79.9	70.1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4.8	81.4	69.5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48.1	53.9	45.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87.5	87.5	79.9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90.4	90.8	86.1
	아동보호전문기관	79.0	81.4	68.7
	기타	77.6	78.4	73.0

<부모 또는 보호자로 부터의 방임 경험>

(단위 : %)

구분		학교 결석에 대한 방치	외박이나 가출에 대한 무관심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음
전체		22.9	12.2	15.3
성별	남성	22.5	13.7	13.6
	여성	23.3	10.5	17.1
연령	9~11세	21.4	9.6	8.6
	12~15세	19.0	11.0	13.4
	16~18세	25.8	13.4	17.3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9	7.0	9.7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24.5	24.5	39.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9.6	9.5	9.0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21.6	12.8	11.0
	아동보호전문기관	17.3	13.2	14.5
	기타	31.1	16.7	21.5

□ (가정폭력) 위기청소년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 44.4%, 언어적 폭력 46.0%를 경험하였고, 남성보다 여성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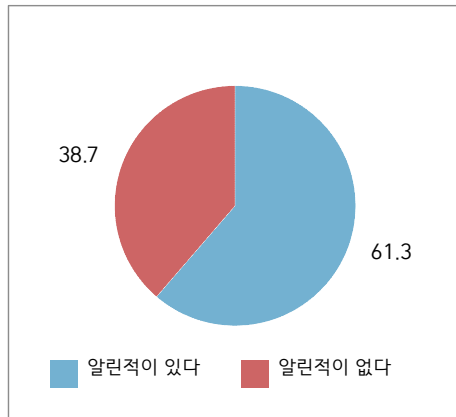
<가정폭력 피해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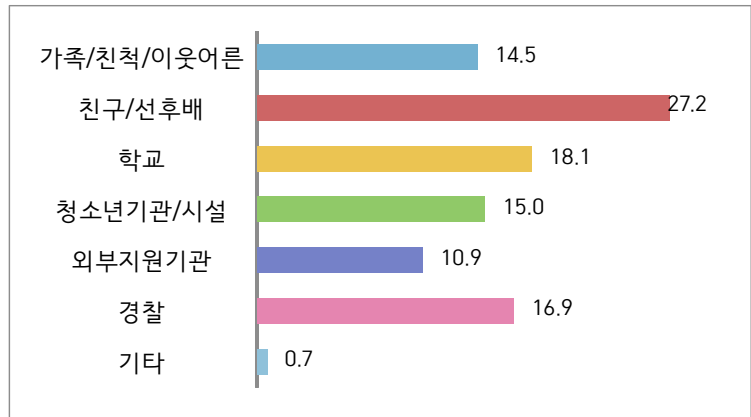
구분		신체적 폭력 및 학대	언어적 폭력 및 학대
전체		44.4	46.0
성별	남성	41.1	41.4
	여성	47.9	50.9
연령	9~11세	42.7	31.0
	12~15세	47.5	49.1
	16~18세	42.3	45.4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8	40.9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72.1	72.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8.0	30.7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37.0	39.0
	아동보호전문기관	71.5	69.3
	기타	39.8	47.9

○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3%, 알린 대상은 ‘친구 또는 선후배’(27.2%)가, 알리지 않은 경우 주된 이유는 ‘내가 잘못된 것이므로’(34.8%)가 가장 높게 나타남

<가정폭력 및 학대를 알린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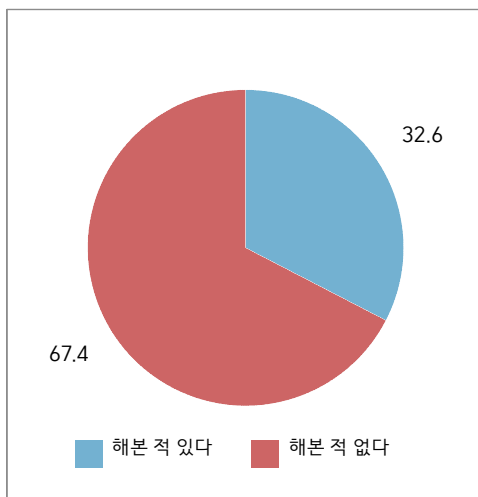
<가정폭력 및 학대를 알린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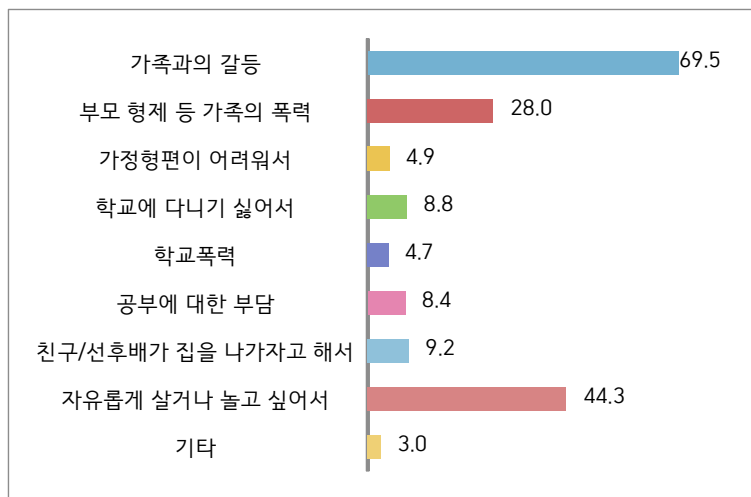
3 위기경험

- (가정 밖 생활) 위기청소년은 기출 경험비율은 32.6%로, 기출원인은 '가족과의 갈등'(69.5%), '자유로운 생활'(44.3%), '가정폭력'(28.0%) 등이 주된 이유임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은 가족문제(갈등 70.6%, 폭력 49.4%)가 많았고,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입소 청소년은 가족갈등(55.9%) 이외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구(54.6%)도 높게 나타나 기관 유형별로 원인에 차이가 있었음

<가출경험 (%)>



<집을 나오게 된 이유 (%)>



<집을 나오게 된 이유(복수응답)>

(단위 : %)

구분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의 폭력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전체		69.5	28.0	44.3
성별	남성	64.0	21.3	42.8
	여성	75.8	35.8	45.9
연령	9~11세	79.7	42.2	28.8
	12~15세	66.7	29.5	48.1
	16~18세	71.1	26.9	42.2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6.7	22.0	35.7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70.6	49.4	36.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72.4	17.5	47.9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55.9	10.5	54.6
	아동보호전문기관	80.8	30.4	48.4
	기타	52.1	9.4	70.3

- 가장 길었던 가출기간은 '1개월 미만'(62.8%) 비율이 가장 많고, 가출 후 생활 공간은 '친구 집'(62.0%), '노숙'(29.8%), '청소년쉼터'(27.5%), '여관/모텔/달방/월세방'(27.5%) 순으로 나타남
- 가출 생활 중 힘들었던 점은 '생활비 부족'(54.0%), '갈 곳 없음'(42.4%) 순이었으며, 생활형 청소년쉼터를 알고 있는 청소년은 66.0%이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59.6%임
 - 생활형 청소년쉼터 이용자 중 93.8%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은 청소년은 그 이유로 '청소년쉼터를 알지 못해서'(41.5%)를 가장 많이 응답함

□ (온라인 인권침해) 위기청소년의 19.8%는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하였음

- 여성이 26.6%(남성 대비 13.1%p 높음), 중학생 연령대 청소년이 21.7%의 높은 피해경험을 보여 다른 집단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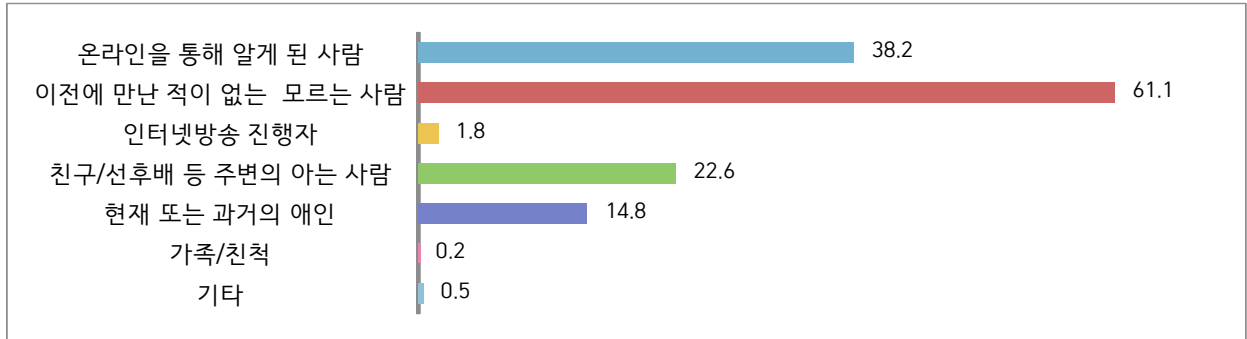
<최근 1년 간 온라인 인권침해 경험(한 가지 이상 경험한 경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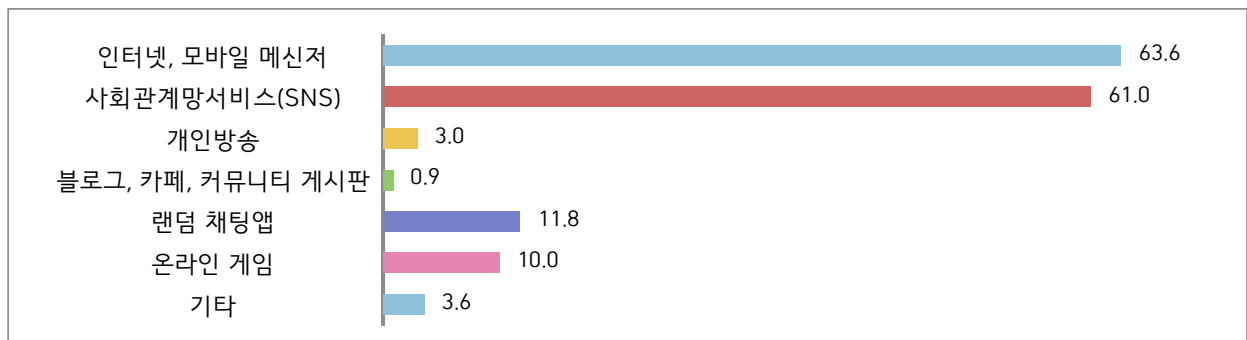
구분	전체	연령			성별	
		9~11세	12~15세	16~18세	여성	남성
온라인 인권침해 경험	19.8	13.1	21.7	19.2	26.6	13.5

- 온라인 인권침해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61.1%)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모바일메신저(63.6%)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61.0%)가 주요 피해경로로 나타남

<온라인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 (%)>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 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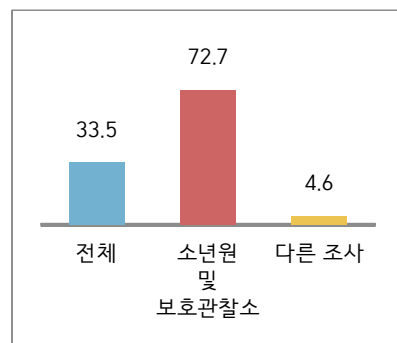


- 온라인 인권침해 시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는 21.0%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귀찮음'(35.5%)이 가장 많았고, 9~11세에서는 미대응 사유로 '대처방법을 몰라서'(61.1%)의 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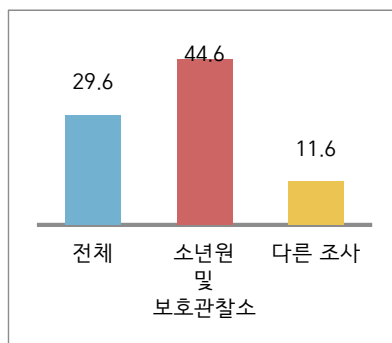
□ (유해약물이용) 흡연(33.5%) · 음주(29.6%) · 환각성 물질(0.9%) 등 유해약물 이용 경험은 다른 조사와 비교 시 매우 높은 수준임

- 특히, 남성과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률이 높고,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입소 청소년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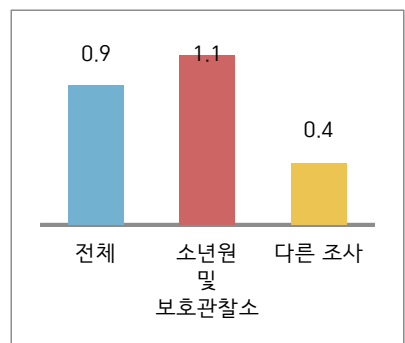
<최근 1달간 흡연 경험 (%)>



<최근 1달간 음주 경험 (%)>



<최근 1달간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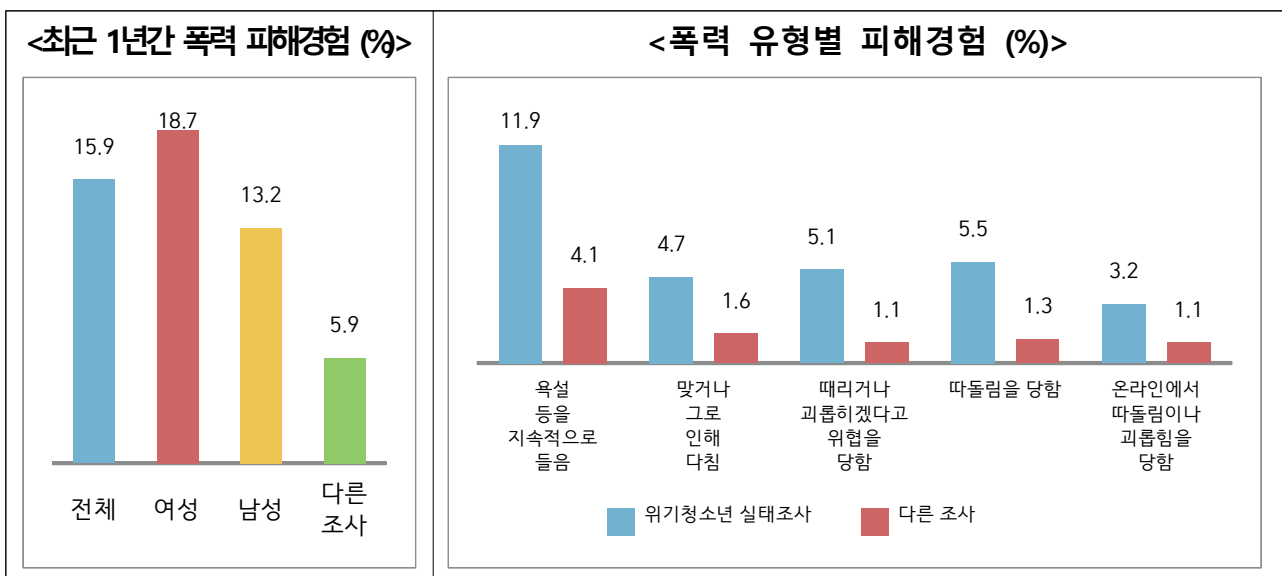
<유해약물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최근 1달간 흡연 경험	최근 1달간 음주 경험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전체		33.5	29.6	0.9
성별	남성	40.2	30.8	1.0
	여성	26.3	28.4	0.8
연령	9~11세	-	-	-
	12~15세	25.1	19.9	0.6
	16~18세	39.7	36.8	1.1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7	23.7	0.4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39.2	30.1	0.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5.4	29.9	0.6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72.7	44.6	1.1
	아동보호전문기관	28.3	21.7	2.2
	기타	82.2	36.5	4.5

□ (폭력피해) 위기청소년의 15.9%는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폭력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조사에서의 청소년 폭력피해경험(5.9%)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폭력 피해경험은 여성이 18.7%로 남성(13.2%) 보다 높았으며,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11.9%로 가장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남



<최근 1년 간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

구분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폭력 피해 경험률*	욕설 등을 지속적 으로 들음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때거나 괴롭히 겠다고 위협을 당함	따돌 림을 당함	강제 심부름 을 당함	온라인 에서 따돌림 이나 괴롭힘 을 당함
전체		15.9	11.9	4.7	3.2	5.1	5.5	0.9	3.2
성별	남성	13.2	9.9	3.6	2.8	4.0	4.1	0.8	1.7
	여성	18.7	14.0	5.8	3.6	6.4	6.9	1.0	4.8
연령	9~11세	32.2	21.2	10.2	6.5	6.9	16.1	1.3	4.8
	12~15세	18.1	12.9	5.6	4.7	5.9	5.5	1.2	3.8
	16~18세	12.4	10.0	3.3	1.7	4.4	4.3	0.7	2.6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4	13.1	4.2	2.9	4.5	6.6	0.7	3.1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24.6	20.3	9.0	6.2	10.1	8.7	1.8	4.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8.8	7.1	2.0	1.3	3.0	3.3	0.6	2.5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11.5	8.4	4.7	3.9	4.5	1.7	1.8	2.4
	아동보호전문기관	18.3	12.7	6.5	3.9	5.9	8.3	0.0	4.7
	기타	27.0	22.2	8.0	5.6	8.0	8.0	1.4	9.2

* 제시된 7가지 유형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

- 폭력피해 후 도움을 받은 지원기관은 청소년기관(61.3%), 학교(46.5%), 의료기관(31.0%) 순이었으며, 여성(41.6%)과 고연령일수록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많았음

<폭력피해 후 지원기관의 도움 경험>

(단위 : %)

구분	전체	연령			성별	
		9~11세	12~15세	16~18세	여성	남성
지원기관 도움 경험	37.8	30.3	33.3	44.4	41.6	32.6
청소년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61.3	48.7	58.4	65.7	59.7	64.1
학교 (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	46.5	62.8	48.0	42.5	46.5	46.5
의료기관 (병원, 보건소 등)	31.0	24.1	26.2	35.9	39.0	16.9

- (아르바이트) 2021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29.5%로 다른 조사에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4.6%)의 6배 이상 높으며,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입소 청소년(43.7%)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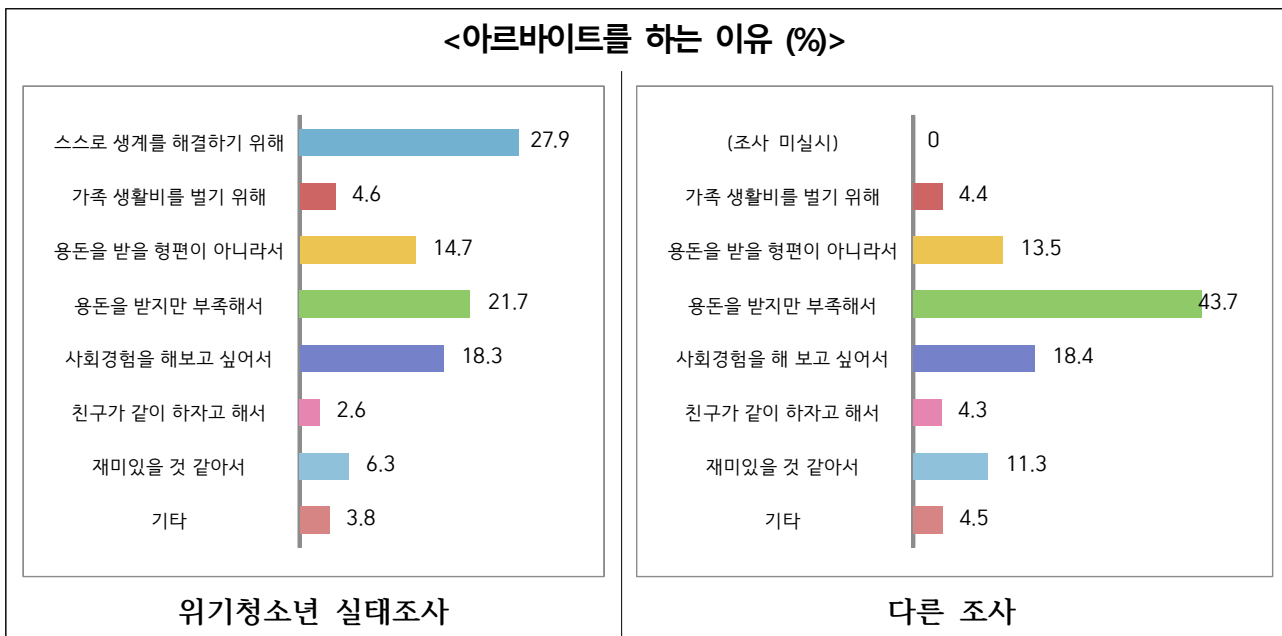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 %)

구분			'21년 아르바이트 경험		한 적이 없다
			현재 하고 있다	현재하고 있지 않지만 '21년에 한 적이 있다	
전체		29.5	14.1	15.4	70.5
성별	남성	30.4	13.5	16.9	69.5
	여성	28.5	14.7	13.8	71.5
연령	9~11세	-	-	-	-
	12~15세	11.5	4.3	7.2	88.5
	16~18세	42.5	21.2	21.3	57.5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6	7.0	7.6	85.4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32.4	13.9	18.5	67.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7.6	19.6	18.0	62.4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43.7	20.2	23.5	56.3
	아동보호전문기관	15.5	5.9	9.6	84.5
	기타	25.1	5.3	19.8	74.9

○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다른 조사의 청소년은 '용돈이 부족해서'(43.7%)가 가장 많았으며, 위기청소년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27.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특히,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의 경우 51.9%가 스스로 생계해결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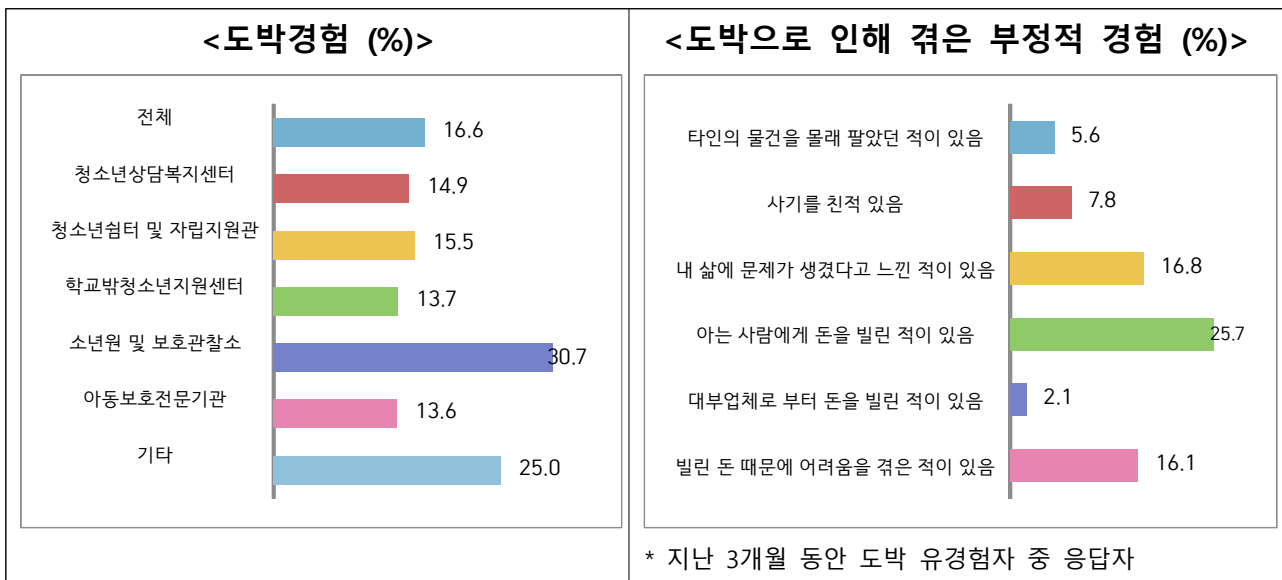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단위 : %)

구분		스스로 생계를 해결 하기 위해	가족의 생활 비를 벌기 위해	용돈을 받을 형편은 아니 라서	용돈을 받지만 부족 해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재미 있을것 같아서	기타
전체		27.9	4.6	14.7	21.7	18.3	2.6	6.3	3.8
성별	남성	30.1	4.5	11.4	21.5	16.7	3.3	7.2	5.3
	여성	25.3	4.8	18.5	21.9	20.1	1.8	5.4	2.2
연령	9~11세	-	-	-	-	-	-	-	-
	12~15세	20.7	1.3	8.1	30.5	20.8	2.6	5.1	11.0
	16~18세	29.2	5.2	16.0	20.0	17.9	2.6	6.6	2.5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3	7.2	9.3	38.9	15.4	4.8	11.8	4.3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51.9	3.0	10.8	17.9	9.5	3.0	0.8	3.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	5.2	20.5	15.8	25.9	1.7	7.3	3.3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34.9	3.9	10.1	22.9	16.9	2.4	7.8	1.0
	아동보호전문기관	20.7	3.0	11.6	40.1	0.0	3.0	1.0	20.5
	기타	31.3	0.0	14.3	18.3	18.0	7.7	1.1	9.4

□ (도박) 도박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16.6%이며, 남성이 20.7%,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입소 청소년이 30.7%의 높은 경험률과 심각성을 보임

*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도박 채무 경험 32.1%, 채무액 평균 72.2만원 (남성 107.3만원,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입소 청소년 213만원)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단위 : %)

구분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	돈을 빌린적 있음	채무정도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전체		16.6	32.1	8.7	8.8	2.5	12.1
성별	남성	20.7	39.3	7.4	11.3	3.3	17.3
	여성	12.3	18.9	11.0	4.3	1.0	2.5
연령	9~11세	-	-	-	-	-	-
	12~15세	15.9	28.0	11.7	8.0	2.2	6.1
	16~18세	17.2	35.0	6.7	9.4	2.7	16.2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9	18.4	6.0	1.9	2.8	7.7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15.5	33.2	12.5	10.5	2.0	8.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7	18.4	6.7	6.3	2.2	3.2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30.7	53.1	5.7	10.4	4.0	33.0
	아동보호전문기관	13.6	49.9	23.7	26.3	0.0	0.0
	기타	25.0	42.8	1.5	14.3	0.0	27.0

* 채무여부 및 액수는 생애경험 동안 도박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 (성폭력 피해) 위기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4.3%로 다른 조사의 결과(1.8%)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여성은 6.9%(남성 대비 여성이 5.1%p 높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은 6.4%로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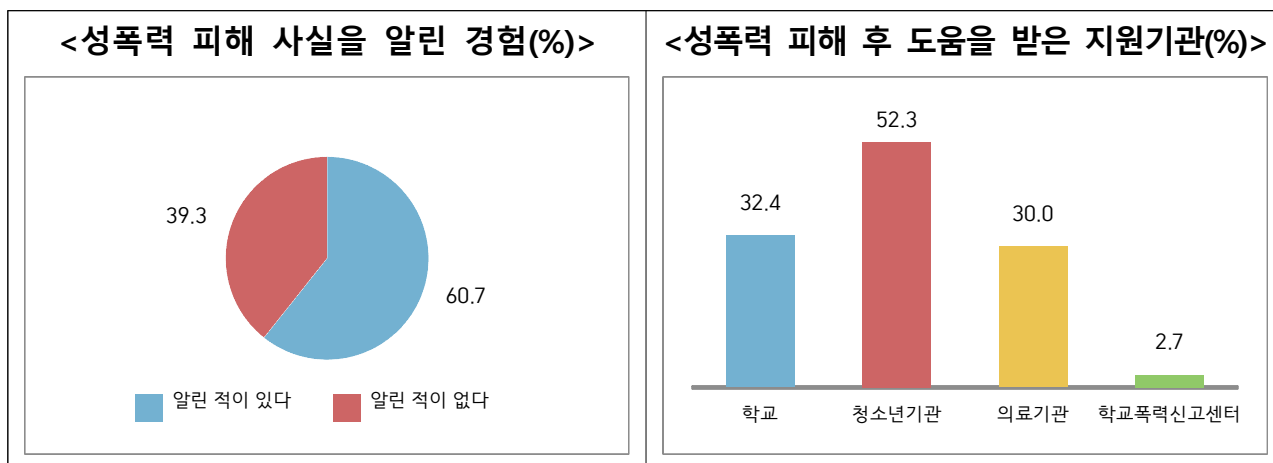
<최근 1년 간 성폭력 피해>

(단위 : %)

구분		성폭력 피해 경험률*	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스토킹 피해를 당함	말, 몸짓 등으로 성적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함	고의적인 신체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함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함
전체		4.3	1.4	2.5	1.1	1.6
성별	남성	1.8	0.7	1.1	0.6	0.4
	여성	6.9	2.2	4.1	1.7	2.7
연령	9~11세	4.4	2.5	2.8	0.0	0.0
	12~15세	4.9	1.8	2.9	1.1	1.8
	16~18세	3.8	1.1	2.3	1.3	1.6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	1.0	2.7	0.7	0.7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6.4	2.1	3.9	2.6	2.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2	1.1	2.0	0.9	1.6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3.7	1.4	2.0	1.1	2.9
	아동보호전문기관	4.9	2.6	2.5	0.5	0.2
	기타	8.0	1.1	2.4	4.4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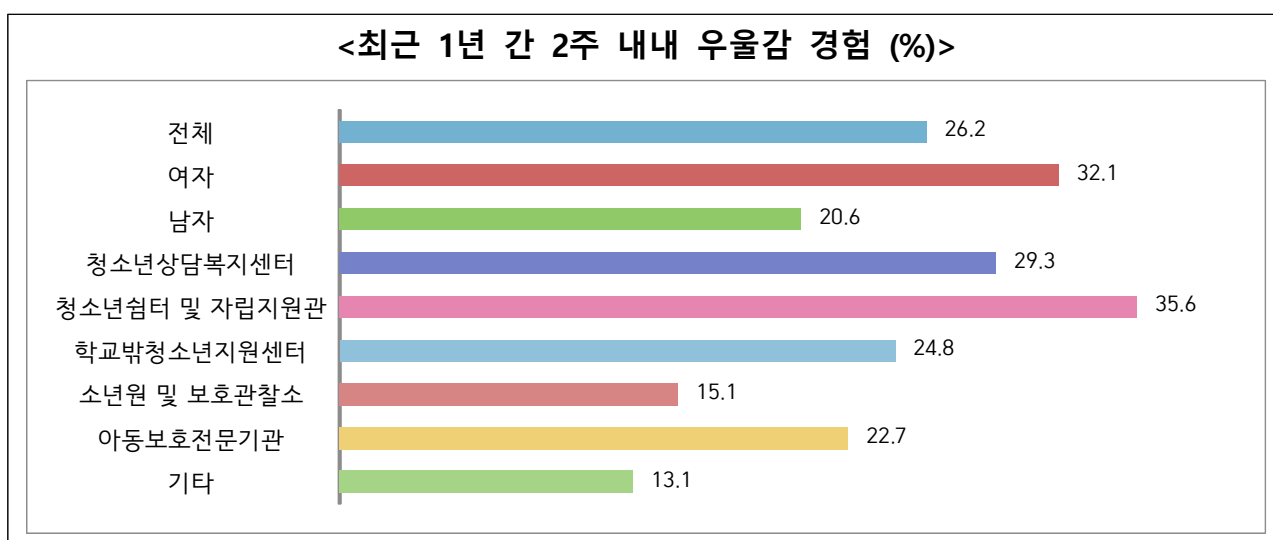
* 제시된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

- 성폭력 가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41.1%), '같은 동네 사는 사람'(24.0%) 등 주로 아는 사람이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사실을 알린 청소년은 60.7%임
-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알려봐야 소용 없을 것 같아서'(22.9%)가 가장 많았고, 도움을 받은 기관은 청소년기관(52.3%)이 가장 높게 나타남



4 심리 · 정서적 특성

- (우울) 지난 1년 간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는 26.2%이며, 여성은 32.1%(남성 대비 11.5%p 높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은 35.6%로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최근 1년 간 2주 내내 우울감 경험>

(단위 : %)

구분		일상생활을 중단 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26.2	73.8
성별	남성	20.6	79.4
	여성	32.1	67.9
연령	9~11세	18.3	81.7
	12~15세	24.6	75.4
	16~18세	28.3	71.7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3	70.7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35.6	64.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4.8	75.2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15.1	84.9
	아동보호전문기관	22.7	77.3
	기타	13.1	86.9

□ (자해·자살) 위기청소년 중 여성청소년(남성 대비 자해 21.6%p 높음, 자살 7.8%p 높음)이 남성청소년보다 더 높은 자해·자살 시도 경험을 보여 자해·자살 문제에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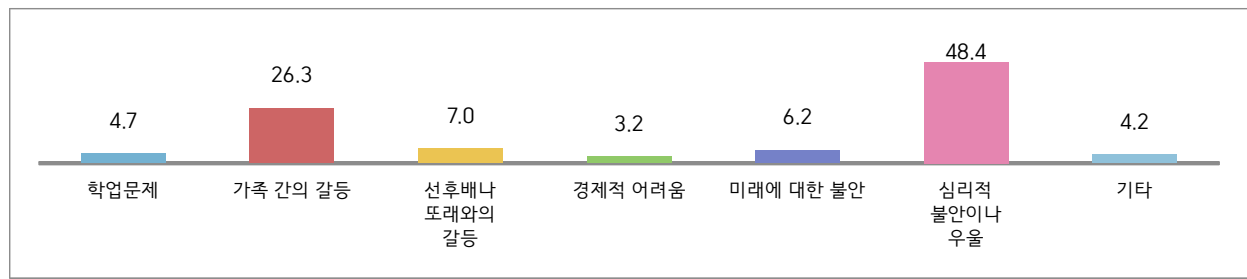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자해·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

(단위 : %)

구분		자해		자살	
		생각해 본적 있다	시도해 본적 있다	생각해 본적 있다	시도해 본적 있다
전체		26.2	18.7	27.5	9.9
성별	남성	13.9	8.2	18.2	6.1
	여성	39.3	29.8	37.3	13.9
연령	9~11세	-	-	-	-
	12~15세	27.6	20.8	27.1	10.3
	16~18세	25.1	17.0	27.8	9.5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9	23.6	36.3	8.7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34.0	24.4	34.7	14.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4	12.8	22.7	8.3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13.3	10.4	12.5	5.9
	아동보호전문기관	32.4	26.2	29.9	15.7
	기타	19.8	16.3	16.6	10.6

○ 자살 시도는 심리불안(48.4%), 가족 간의 갈등(26.3%)이 주된 이유이지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45.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59.2%) 청소년은 가족 간 갈등과 학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자살 생각 및 시도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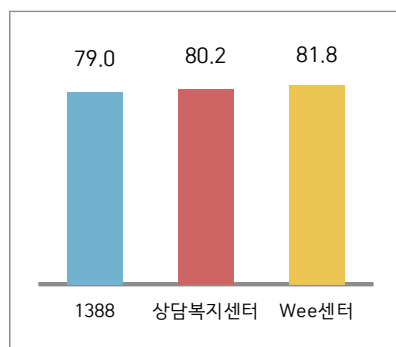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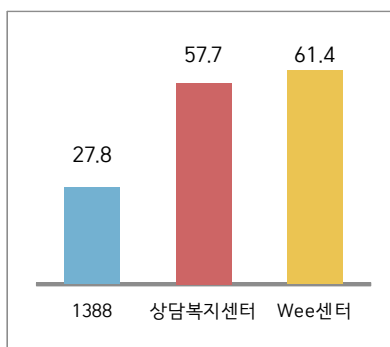
보호체계

- (사회적 지지) 가정 밖 생활을 경험한 청소년이 가정 밖 생활을 하는 동안 도움을 준 대상은 '친구 또는 선후배'가 67.4%로 가장 많았음
- 폭력피해를 당한 후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7.8%이며, 성폭력 피해의 경우 도움을 받은 경험은 31.9%에 그침
- 자해나 자살 생각을 주위에 알린 경우는 절반 수준(자해 46.0%, 자살 51.2%)이며,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1.0%로 나타남
-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알고 있는 경우와 알고 이용한 경우는 '위(Wee)클래스 또는 위(Wee)센터'가 각각 81.8%, 61.4%로 많았고, 이용했을 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9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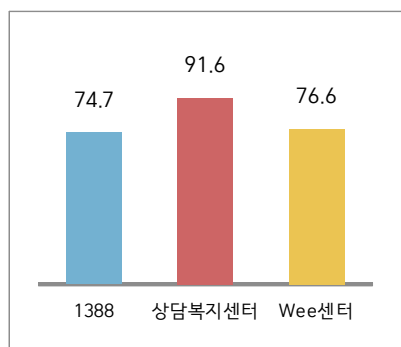
<인지율 (%)>



<인지한 경우 이용률 (%)>



<이용한 경우 도움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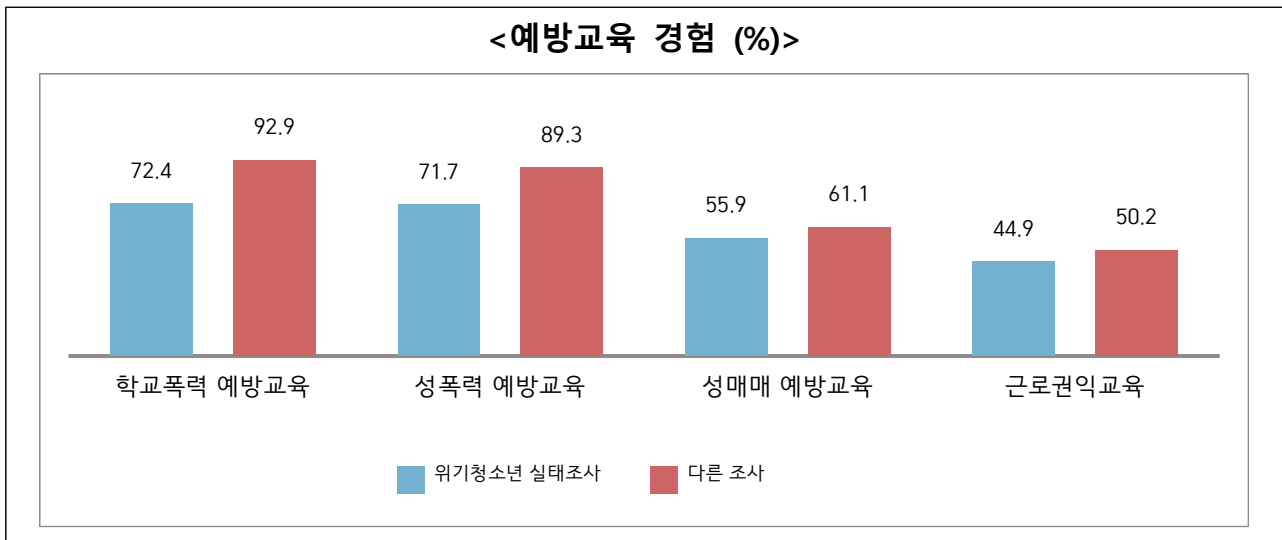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청소년상담1388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인터넷드림마을	치료재활센터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인지율	79.0	80.2	81.8	19.8	23.6
안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률	27.8	57.7	61.4	17.7	16.6
이용한 경우 도움정도	74.7	91.6	76.6	79.5	83.1

□ (교육) 위기청소년들은 위기에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교육경험률은 다른 조사의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이용·입소 청소년의 경험률이 낮은 편임



<최근 1년 간 예방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 %)

구분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근로권익교육	
		경험	도움	경험	도움	경험	도움	경험	도움
전체		72.4	77.6	71.7	81.0	55.9	81.6	44.9	85.9
성별	남성	71.4	81.2	70.8	83.2	55.8	82.6	41.7	86.9
	여성	73.4	74.1	72.8	78.9	56.1	80.6	48.3	85.1
연령	9~11세	94.0	90.2	79.5	91.6	44.9	87.2	-	-
	12~15세	82.2	76.1	80.0	79.6	62.0	80.1	42.4	82.5
	16~18세	62.7	77.2	64.7	80.9	52.6	82.5	46.7	88.3
기관 유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8.7	76.6	82.4	79.4	61.0	79.8	44.1	81.4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83.9	76.7	86.2	80.4	71.2	82.3	64.3	83.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6.4	76.7	50.4	83.1	38.5	84.9	45.9	90.9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67.8	81.9	70.1	82.1	61.0	82.8	25.9	85.7
	아동보호전문기관	92.7	79.6	85.5	81.9	62.6	78.1	36.4	87.1
	기타	70.6	70.9	69.1	79.4	68.6	81.4	39.8	91.1
다른 조사		92.9	77.1	89.3	78.3	61.1	77.2	50.2	-

- (전반적 어려움) 위기청소년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45.9%), ‘진로를 찾기가 어려움’(30.9%), ‘가족과의 갈등’(27.2%), ‘무기력함’(22.2%), ‘생활 불안정’(19.5%), ‘또래와의 갈등’(15.4%),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음’(14.6%)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 다른 위기청소년에 비해 ‘가족과의 갈등’(48.9%)이 높게 나타남
- (가정 밖 생활 어려움) 가정 밖 생활 중 어려운 점은 ‘생활비 부족’(54.0%), ‘갈 곳 없음’(42.4%), ‘우울·불안’(33.3%), ‘일자리’(20.9%) 순으로 조사됨
-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방안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37.1%)과 ‘숙식제공 등 생활지원’(34.3%)으로 조사됨
- (정책수요) 위기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 제공’(77.6%), ‘직업교육훈련/자격증취득’(76.6%), ‘건강검진 제공’(76.4%), ‘경제적 지원’(75.4%), ‘각종 질병 치료’(75.0%), ‘일하면서 겪는 피해에 대한 보호’(73.4%), ‘상담 제공’(73.2%) 등으로 조사됨
- 다른 기관 청소년에 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은 ‘진로준비’(77.7%~85.1%)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의 경우 ‘일자리 및 자립지원’(78.1%~89.8%) 희망이 높게 나타남